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頁
株式會社朝鮮日報社

## 社說

# 極東에對한英外相의新提議

### 海軍豫備會商의新暗礁

一

今日外電에依하면 外에면英外相은日本側이『맥도날드』和協試案에不同意임을表明하고 實質上으로 軍備平等을貫徹할것을强調한데對應하야 極東에對한四國條約九國條約의 新締結을提議하얏다한다。이것은日本의同等比率要求는 極東及太平洋上에在한 日本의覇權에對하야 英米의干涉을全然不可能케하려는戰略的立場에서主張되는것으로解釋한結果會商이失敗될時에 極東及太平洋上에在한政治上利害關係를 調整키爲하야 華府條約과併行하야 締結된四國條約과 九國條約을 再確認하려는意圖에서 나온것으로볼수잇는것으로써 海軍會議에잇서政治問題不討議의 立場을固持하야온日本에對한 一種의苦肉策이라할것이다 海軍軍縮의 量的質的의어느쪽에도 協定에到達치못한現在 이러한政治問題까지를提議하는것은 勿論會商의前途를 더욱紛糾케하는것이라고할수도잇지마는 이는日本側의態度를緩和케하려는一種의『에누리』라고도볼수업는바아니다

二

四國條約이라고 하는것은條文에示한바와가티 一九二一年華盛頓會議에잇서 日英米佛四國間에 各締約國의『太平洋方面에在한 島嶼인 屬地及領地에關하야 그權利를 尊重한다』는것을 主旨로한 一種의 領土不可侵條約이니 이條約이成立된結果當時 極東에在한 勢力偏重을改訂키에 汲汲하든 米國은 日英同盟條約을 廢棄식힘에 成功하얏다는것을 記憶할일이다 이條約은十年間效力을有하고 十二個月豫告로써 此를終了케할수잇는 各締約國의權利留保下에 一九二一年十二月十三日 華府에서 署名된것인데 그效力이終焉되는 一九三一年 十二月에廢棄되지안헛슴으로 그效力은尙今繼續되고잇는것이다 그런데 이것을再確認하는 新條約을 提唱한다는것은 屋上에屋을 짓는것과가튼일이지마는 이는不戰條約이잇는 우에不可侵條約을짓고야 安心을하는것과가튼 最近國際政局의不安定性의一面相으로 海軍豫備會商의 一種의悲鳴이라할것이다

三

中國에關한 九國條約이라고하는것은 이또한前○해이에依하야創始된 米國의傳統的極東政策인 門戶開放機會均等의原則을實現한 條約이다 그要旨는그條文에示한바와가티(一)中國의主權、獨立및그領土的及行政的保全을 保全하고(二)中國이스스로 有力또安固한政府를確立維持키 爲하야 가장完全하고障碍업는 機會를供與함(三)中國의 領土를 通하야一切의 國民의 商業及工業에對한 機會均等主義를 有効히樹立維持키 爲하야 서로盡力함(四)友好國의臣民 又는人民의權利를 抹殺할特別한權利又는 特權을求키爲하야 中國에對한情勢를 利用하는것、又는友好國의安寧에 害잇는行動을是認치아니한다고되어잇는것으로、이것은主로 中國에對한 日本의優位를 牽制키爲한 米國의『이니시아티브』에서 創案되엇든것도 記憶할일이다 그런데 米國이大戰後其隆盛한勢力에따라서 華府會議를 리드한結果 締結된 이兩條約을、

英國側이 再延期하는것을 要請하는것은、一面에 잇서서는、一九三〇年倫敦會議에잇서서 一九二九年 맥도날드英首相이 年末以來大統領을『라피단』官邸에까지往訪하야、補助艦에잇서서의 英米均等을承認하고 對日共同戰線을約하얏든 所謂『라피단』協定을想起하리만큼、英國側의態度가、米國에 近接하여감과가튼 印象을주는바도잇다。

가저이던外相이 松平大使와會見하던때와 日本의回答翻旨에 對하야說明不明한點을 質問한後다시 第二回閣議를열고日本의回答을 中心으로協議를續行할터이다

政府軍縮委員會와 政府에 代하야 平和合同의 政策으로써하라」고 主張하엿는데 벌더슨議長은「蘇聯邦의主張도有力한構想으로軍縮會議의他部分에잇서서考慮할것이라」고言明하엿다

# 艦型砲徑制限等 英國의第二段策

## 日米모다質的協定은困難視

## 太平洋防備制限考慮

【電通倫敦二十日發】 海軍軍縮豫備會商에서 兵力量協定交涉이益益暗礁에 前途를憂慮케하는데對하야 英國側이 右協定이不成立될境遇에 處하기爲하야 第二段協定事項으로 質的問題를中心으로

第一、第二次艦型砲徑制限 第二、太平洋防備制限繼續 第三、建艦計劃相互通告義務

以上三項의 考慮를이미日米兩國에 申請한것은 豫備會商의 成行을可能케하는것이라하야 注目하고잇는바 現今米國은 兵力量協定이不可能할 境遇에는 第三項만에關係되고 日本도亦第二項에만 同意하리라는것이 大略明白하게되여 結局이質的協定도 樂觀할수업게되엿다 即米國代表部는 二十日單純한部分的協定에依하야 大艦巨砲主義가束縛되는것을 願치안코 또 太平洋防備制限은 華府條約의附帶物이라는旨를 指摘하고잇는一方 日本代表部側에서도 海軍側專門家는 左와如히意向을 明白히하고잇기때문이다

一、不幸히 日本의 防禦本位의 海軍力主張이容認되지안코 兵力量協定이成立되지안흘境遇에는 日本은 其國防의 使命을다하기爲하야 最適하다고信하는 가장 能率的인艦種만의 建造又는維持에 全力을傾注할터이다

一、右方針이 小型艦艇其他新艦種의 實現을促進할는지 其與否는 아직말할수업스나 적어도 日本은 極東平和維持의 使命을다하는데 가장適當한 艦種、그리고 世界가比較的걸리지안는것을 選擇하게될것이다

一、自主的制限과 內容報告는 量的制限과相互關連되여 世界平和協定意思가 確定된時에만 可能하게될것이다

# 英政府『次善案』成功할可望殆無

## 日英米間建艦競爭이始作되면 米、아류산群島에防備

【倫敦二十日發聯合】 海軍豫備會談이 決裂되는境遇英政府가所謂『中途案』으로抱懷하는質的制限 太平洋防備制限及建造計畫休止等 諸規定存續의『次善方針』이라는것은 十九日外相사이먼氏의 言明에 依하야 明瞭히되엿는데 量的制限을分離한質的制限案에는 日本代表部에서는 絕對反對의立場을堅持할으로 英政府의次善案도結局流産될形勢로 質的制限案에關連하야山本代表가二十日外人記者團에言明 한바는매우 明確하야當局은結局華盛頓條約의諸條項中保有될것은 太平洋防備制限條約뿐이나안될까하는 觀測이잇스나 英政府當局은現海軍條約이 成功되지못하는境遇는 太平洋防備制限條約뿐의 別個의協定에滿足할方針으로斷頗히 代表部의說得에 努力하고잇다

米政府는 一旦日英米三國間에 建艦競爭이始作되면 아류산群島에要塞를構築하고 北太平洋上을警備할方針으로 同群島의 防備에關하야 미리부터協定을하기에는 容易히同意치안흘듯하며 딸아서防備制限條約의存續도可望이업서보인다

## 英政府閣議 日本回答을中心으로 協議를續行

【電通廿一日發】 軍縮豫備會商은日本回答通告에依하야 緊張한第二頻拂에 入하엿는대英政府는 廿一日午前閣議를開하고 맥首相의所謂過去二十六時間사이의 新動靜에關하야重要協議를行하고 一旦散會하엿다

# 滿州在石油庫量 百二十一萬餘罐

【大連二十日發聯合】 滿洲國의石油專賣制實施에關하야 對策協議를爲하야 赴奉中이엿든當地스탄다ー드●텍사스●아지아三石油會社支店長等은 昨日歸連하엿는대 奉天에서協議의結果具體的成功을 엇지못한모양이다 그리고前記三石油會社로서는將來의 對策보다도차라리現在에堆積되여잇는 石油를專賣法實施前에 如何히消化식힐까하는데 焦慮하는대即現在의三會社의石油貯藏數量은

一、스탄다ー드、오일배큠컴패니ー 一九二、二八〇罐
一、텍사스 컴패니ー좌이니ー즈리미테드 六三〇、七〇〇罐
一、아지아오일 컴패니 五、〇〇〇罐
一、其他 三八四、五〇〇罐
合計 一、二一二、四八〇罐

右와如한 大量의石油가現在大連에積滯되여잇스며 此의消化에는相當한時日을要할으로 結局滿洲國政府의買上을期待하는것으로 觀測된다

# 海軍三原則과 華盛頓條約 (二)

徐 椿

條約의裏面

暫間、華府會議를 열게된 動機와 또는 比率을 決定할 때에 依據한 原則을 說明하면 如左하다。

▲華府會議開催의動機

가장 有力한動機는 世界大戰直後에 잇서서의 各國民의 平和를 要求하는 希望이 切實하엿다는 點에 잇다。華府會議가 열니든 一九二一年은 世界大戰이 終熄한지 아직 三年이 채 되지 못한해이엇다。그러므로 歐米各國民은 大戰의 辛酸한 經驗이 아직 腦裏에 스러지지 안코잇섯다。따라서 戰爭回避心은 全世界를 風靡하고 잇든때다。

그런데 當時의 事實은 이에 反하야 世界의 三大海軍國인 日英米間에는 當時 極度의 海軍擴張競爭이 잇섯다 即、日本의 八八艦隊計劃에對하야 米國은 海軍擴張三年計劃으로 應酬하고、이에 따라서 英國도 이것을 傍觀할수 업다하야 五萬噸、備砲口徑十八인치의 超弩級艦四隻의建造計劃을 세웟다。

이에 따라서 國民負擔이 加重할뿐만아니라、새로 戰爭發發의 危險을 包藏하게 되엇다。

戰後、疲弊된 各國民에게 擔稅能力이 업슬것도 勿論이어니와、戰爭에 對한 恐怖心이 極度에 達한 當時의 各國民에게는 軍備競爭에 依한 戰爭爆發의 危險은 이것을 想像만 해도 到底히 勘耐할수업는일이다。

따라서 世界各國民은(一)世界平和의確保、(二)國民負擔의 輕減을 二大標語로 標榜하고 言論으로、또는 新聞 雜誌를 利用하여서의 宣傳으로 世界的 輿論을 作成하야 그輿論의 힘으로 各國政府를 動하야海軍縮少를 目的으로한 華府會議를開催케한것이다。

▲比率決定에依한 原則

흔이傳하는말에 依하면 華府條約에 잇어서 英米各五、日本三、伊佛各一●七五의 比率을 決定할때에 依據한 原則은 各國當時의 現有勢力을 基準으로 한것이라고한다。即그當時에잇어서 各國이保有한 軍艦噸數를 比率로따지면 假令、英國을 五로 잡으면 이에 對하야 米五、日三、佛伊各一●七五의 比로 되어잇섯다고한다。

이제 이것을 暫間、英國의保有量을 一로 잡어 다시 說明하면 米는 가티 一이오、이에對하야 日本은 六、佛伊는三●五라는것이다。

이現有勢力基準說이 當時의 事實에 가깝지 안흔것은 아니나 英米가 이에 基準을 둔 것은 마치 그러한 口實이 잇섯기때문에 그것을 捕捉한것에 不過하고、依據한 根本原則은 事實、딴데 잇는것이다。그러면 그原則은 무엇이냐 하면(一)世界的으로는 海軍制覇權을 英米兩國이 均等히 分有한다。(二)局地的으로는 英은 佛伊의 合勢海軍에對하야 米는 日本에 對하야 優勢를 가지도록 比率을 定하자는것이엇다。等等의 二個原則을 滿足시키도록 英米의 마음속에 품은秘案이엇는데、英米는 華府條約의 締結에 依하야 完全히그目的을 達햇다。即此를 數字로 說明하면 英米의 各五를合한 數 十으로서 日佛伊를다 合한 六、六五보다 三●五의 優勢다。또한 此를 局地的으로보면 英의 五는 佛伊의合勢海軍力三●五보다 優勢요、또한米의五는 日本의 三보다 優勢다。

이러케 定해 노흐면 局地的으로는 英又는 米에對하야 어느나라도 對抗할수업고、世界的으로는 英米의合勢海軍에 對하야 萬一列國의 總勢力을 가지고도 敢히 對抗할수가업는것이다。

▲엔自乘의法則

一步를進하야 英米가前記原則을基準으로하야 比率을 決定한理由는 어데잇스냐하면 그것은所謂엔自乘의 法則에基據한것인데、그法則은 即 五의海軍과 三의海軍과 싸우면勝負의勢는 二十五(五自乘)對 九(三自乘)의 差、十四만한優勢로五의海軍의勝利에 歸한다는것이即그法則이다。(續)

# 建艦技術其他 軍事上機密嚴守

## 米國海軍長官發令

【華盛頓二十日發聯合】 海軍長官스완손氏는軍事上의機密漏洩을絕對阻止하도록 海軍工廠造船所軍需品 製造會社에二十日機密嚴守令을 發하엿다機密嚴守令의要旨는左와如하다

一、軍艦及海軍飛行機의設計其他關係의 機密을 嚴秘히하야決코外部에 漏洩치안토록嚴戒할것

一、特히建艦技術、海軍、無線裝置、砲輸上의 改善、空襲에對한軍艦의 安全裝置考案에關하야 嚴重히注意할것

그리고軍事漏洩阻止의見地에서 스완손長官은 이미映畵會社에 嚴重取締令을發하야 海軍의軍事上機密이映畵될는을通하야海外에漏洩되지안토록 嚴重警告하엿스나 更히議會에提出할年次報告로부터도 軍事的機密에關하는重要事項은全部削除할方針이다 未來하면 될수잇는대로 速히撤廢하고 그리고리트비노프 蘇聯代表는「常

# 一般軍縮會議 幹部會

【電通倫敦二十日發】 一般軍縮會議幹部會는 米國의提案에基하야武器輸送取締武器製造豫算發表、常設軍縮의 三委員會設置를 決定하고無期休會로되엿는데此는 右新三委員會도하여금諸種問題의 考究를繼續식히고一般政情이許하고時期가到

# 蔣介石氏歸京

## 重大諸問題協議

【南京政府二十日發聯合】 蔣介石氏는九江으로부터 軍艦永綏로蕪湖에上陸하야自動車로二十日午後二時半入京 直時로軍官校內의官邸에入하엿다 蔣介石氏今回入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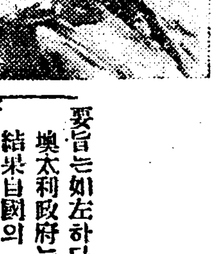
一、第五次全國代表大會
一、中央西南合作
一、討共匪區의善後措置
一、四川의討共計畫

等南京政府가當面한重要問題에 對하야 汪精衛氏以下와全般的으로協議하려라고觀測된다

# 俄然、墺太利政府 軍縮平等權要求

## 背後의操縱者는伊首相무氏?

## 歐洲政局에大衝動



【쥬네브二十一日發聯合】 軍縮幹部會二十日의 會議席上墺太利代表 부후류겔公使가 軍備均等權을 要求한 事實이判明되야獨政府의 强硬態度와 難遊을 繼續하는 一般國際軍縮會議는 更히新難關에 直面하게되엿다 부후류겔代表의主張要旨는如左하다

墺太利政府는 산졔르만條約의結果自國의 軍備에는重大한制限이잇다 그러나 最近各國은 頻頻히 軍備擴張에狂奔하고잇는 現狀인 此際에貧弱한軍隊로는 國防完全을期할수업나 이見地에서墺國政府는自國의軍備均等의權利를承認하 는것이안인限如何한軍備制限條約에도加盟할수는업다

墺太利代表의 右聲明은 世界大戰後 오랫동안 戰敗國으로屈辱的地位에 甘受하여온 同國政府最初의 國家均等主張을 明白히 하엿스니만치 歐洲國際政局에 重大한波紋을 投하엿는대 다시墺太利政府의背後에는 뭇소리니首相이잇고 獨逸及유고슬라비아兩國에對한牽制로서 墺太利의軍備强化를要望하는伊國政府가 操縱하는것으로觀測된다 (寫眞은무首相)

# 太平洋防備擴張權 廢棄通告와同時獲得

## 米國代表部의見解一致로 英國側은失望奔走

【電通倫敦二十一日發】 米國側의權威者로 確聞한데 依하면 米國代表部에서는 太平洋防備制限協定에關하야는 華盛頓條約이廢棄되는대로 當然獲得한다는見解에一致하야 右方針決定을 보앗다 英方面에漏洩한結果 英國側에서는 太平洋의緊張을加하는說으로 解釋하고 甚히失望하야 무슨形式으로든지 制限方式을 存續하고십흔希望을再三米國側에表示하고잇다

## 人事・集會

▲宮本元氏(京城地方法院長)小野寺監督書記를 同伴하야 事務視察次로 一週間豫定으로 廿一日에 漣川、鐵原、伊川、平康等各地에出張

# 復活要求猛烈로 豫算閣議大紛糾

## 軍部態度極强硬

【東京電話聯合】 第二次豫算閣議는 二十一日午後一時四十分首相官邸에開會 岡田首相以下全閣僚出席于先藤井藏相으로부터 大藏省의各省復活要求에對한査定槪要에對하야苦衷한事情을말하자此에對하야 가장不滿을가진 軍部大臣은 滿洲事變은아즉 平常化되지못하고一九三五、六年의國際的重大危機直面에面하야國防整備必要上今回査定은承認할수업다 고하야 再考를强硬히主張하야 閣議는俄然緊張을示하엿다 다음大角海相이이러나 同一趣旨의强硬한 態度를 示하얏는대 軍部兩大臣은 모다數字에는言及치안코 時局에對한認識論으로出發하야 最初復活要求를一步도讓步치안엇다다음 林陸相、遞相等이 各各復活要求事情을說明하엿는데 藤井藏相은 各方面으로의 調査事情에基한大藏省의 公債發行限度에關한大藏當局의意見을述하고 午後六時一旦休憩、晩餐後 午後七時再開하기로되엿다

## 夕刊後의市況 廿一日

大阪短期氣配
大新 八一四〇 (一〇五)
日新 一二七五〇 (二〇五)
東新 一〇九六〇 (一〇〇)
新東 一三一六〇 (一〇五)

橫濱生糸
前場 五五八〇〇 先限 五八一〇〇
後場 八九六〇 先限 八〇五〇

改造 十二月號 見よ堂々六百十六頁の大冊
特價八十錢 送料四錢 東京市芝區新橋七丁目 振替東京八四〇二番 改造社
現代人と厭世 主義 吉野季吉
政党總裁論 佐々弘雄
軍人と政治 馬場恒吾
▼日本農業の賃勞働 (權威ある資料と統計にもの云はせて社會經濟史の一角から農業に於ける賃勞働を解明した論文) 土屋喬雄
櫛田民藏氏を憶ふ 大內兵衛 權田保之助
華麗鳴風物誌 北原白秋
競馬ファンの名士達 岡田光一郎
▼映畵界寸評 ▼社會寸評 ▼スポーツ界寸評 ▼劇壇寸評 ▼論壇寸評 ▼樂壇寸評
岐路に立つ現內閣 (卷頭言)
郊外小市民街散步 大江賢次
廢娼運動の歩み 久布白落實
子母澤寬 やくざ小話
大衆讀物 長谷川伸 股旅の峯
平林たい子 貧乏ばなし
大衆作家評判記 徃本實
國家主義思想の限界 美濃部達吉
▼アポリネエルと「モナ・リザの失踪」 鈴木信太郎
▼農民組合運動の現狀 長野朗
▼フランス政局の展望 世界情報
日米野球觀戰記 久米正雄
猪擊ちの話 佐野繁次郎 兒島富雄
街の暮で拾った話 サトウ・ハチロー 堤寒三
總持寺 本門寺 護國寺 訪問記 岡本一平 岡本かの子
河合武雄藝談 (當代新派隨一の名女形が語る藝道苦心談、女形生活四十年の思ひ出)
梅幸とに左衛門 岡本綺堂
東北飢餓農村實地踏査記 (我社會運動の長老が犀利なる洞察を以て有機的に描ける悲惨なる詩人的情熱) 山川均
▼隨筆日誌 林久男
▼伊梨一見 佐藤岡山
▼日本刀を語る 內田良平
文藝時評 杉山平助
財界風聞 菱田友三
增稅論 (藤井豫算編成の核心を衝き軍事費の比重を問ひ增稅の不徹底、無氣力を暴く。) 鈴木茂三郎
▼社會法の限界性 加古祐二郎
時の人物 ▼林陸相論 阿部眞之助 ▼町田・兒玉・吉田・小栗 山浦貫一 ▼藤井藏相の失敗 北條三郎
日英米海軍首腦部論 伊藤正德
政策と軍艦 石丸藤太
大阪の風水害を觀て 長岡半太郞
昭和維新への道 松岡洋右
時局漫談 尾崎咢堂
維新史感想 菊池寬
小說 年中行事 (病後の沈默を一年半破って得意の題材に發する快作) 里見弴
小說 めらはど (東北飢饉地の娘を描ける力作) 平田小六
小說 頓生菩提 (獨自の境地を發揮せる名篇) 井伏鱒二
小說 肉の悲しみ (奇想縱橫痛快無比の快作) 石坂洋次郎
小說 瘤 (數年目に得た文壇諸豪八十枚の傑作、作者獨特の寸隙なき構想描寫に一凡人の生涯を浮彫にした力作) 山本有三

003750

# 白晝京城市內에 可恐할怪事件

# 幼稚園兒를拉致 외투를奪取追放

## 下學하고동무와歸家途中 怪少年이出現誘引

대도시의 한복판에서 유치원에서도라오는 어린아이를 떼여서 함거하여다가 외투를벗겨서빼앗고 어린아이는빈몸뎅이로쫏차보낸 실로일만자녀를 가진가정에서는 안심을 못할해괴하고도 무시무시한 사건이이십일일종로서 관내에서 발생하엿다 그날 오후두시경에시내관철동(貫鐵洞)이백이십사번지 문화여관(文化旅館) 종로려인숙조합장(鍾路旅人宿組合長)리홍주(李泓周)씨의 예손리대연(李大淵)(六)은그오촌숙인 관철동이백칠십오번지 리윤호(李允浩)(七)와함께 청진동(淸進洞)갑자유치원(甲子幼稚園)에서 일과를마치고도라오든길에 청진동뒷골목에서 돌연나히십칠세가량의 소년이나타나드니 부자집아이니 네외투를 전당을자버서 맛잇는 음식을사먹자고 하면서 떼여가지고는 견지동을 지나서 단성사(團成社)부근까지가드니 가티가든 리윤호를 위협하야 쫏차못오게하고는 그만어대로자최를 감추어버렷다고한다 리윤호는 그만그길로리대연의집에 달려가서 이일을고하야 그집에서는온집안이 갑작이물끌듯소동하야 온가솔이차저떠나는 한편으로소관종로서에급보하엿다

## "우동"한그릇사주고 안골목에서脫衣

### 外套벗고鍾路四丁目에서彷徨中 午後六時警官이發見

이와가튼괴상한 보고를 바든종로서에서는 이는혹은 무슨악날한유괴단의소위로서 아기의몸에위해를 가하지나안홀가 하야곳수은동일대에 수사선을 느리는한편으로 시내각서에 수배하야 어린아이의 소재와 함께그를 탐거한 괴소년의 행방을엄중히 수사하든중 오후여섯시경에 이르러 종로삼정목 파출소순사가 전기 리대연 이가외투가업시 종로삼정목 부근을배회하고 잇는것을 발견 하엿는데 어린아이의 말에 의하면래의 괴소년은 그를끌고 종로오정목 제일극장(第一劇場)부근 어느골목까지 가서는 또다른 한명의 열삼사세가량의 소년이나타나드니 두명은 리대연을오전짜리 우동 한그릇을 사주고는 외투를 벗겨가지고갓다고한다 이에경찰은 의말을단서로 계속활동한결과 괴소년들은연지동(蓮池洞)림(林)전당포에전당잡고 리대연의 외투를 칠십전에잡혀가지고 간것이 판명되여그들은역시 그부근에 근거를두고잇는것으로추측하고방금그일대에서맹활동을 계속중이다 (사진은리대연소년)

## "그런외투닙으면 순사가잡어간다"

### 리대연소년이야기

악소년의 수중에잇다가 네시간만에야도라온 리대연군은 그가당한일을 아래와가티 태연하게우스면서 쳠업시 이야기한다 처음에는요 그사람의말이 아히들이 그런외투를입으면 순사가 붓자버간다구 하겟지요 그러구는 맛잇는것 사준다구하면서 작구가티가자구만 해요 국수집골목에가니까 또한사람이잇는데 둘이 수근수근하드니 나는우동을 사주고서 잇스라고하고는 외투를 벗겨가지고 둘이가버렷서요 암만 기다려도 오지안으니까 혼자 집으로오다가순사를맛낫서요

### 『危害나加할가봐 第一걱정하엿소』 親祖父談

이에대하야어린아히의조부인리홍주씨는아래와가티말한다 도모지듯지 못하든 일입으로 떡놀랏습니다 혹은 어린것의 몸에 위해를가하지나 아니할가하야 무엇보다도 걱정하엿습니다 경찰에서 활동한것은 물론이나온집안식솔이 약세시간 동안소동하야차저댕겻습니다 마침속히무사히도라와서안심합니다운운

## 幼稚園兒는 同行者가必要

### 京城保育 張金山氏談

유치원 어린애들은 그런일이아니라도 등하교통이 복잡한도시에서는 그부형이나 집안사람이 다리고 댕기는것이조타고 생각합니다 될수만잇스면 유치원에 와잇는 동안에도 부형이나 집안사람이 따라 잇스면 조흘것갓습니다 귀중한 자녀들을 철업는저히동무끼리 맥겨두는것은 지극히위험한일이니까 일반가정에서는 이에대하야 특히주의해야 할줄압니다운운

## 自稱新聞記者 百貨店서쓰리

충남공주군 금정(錦町)구십팔번지 송생으로 자칭시내한강통(漢江通)삼정목륙번지자칭 망언신문(鍾業新聞)긔자강금년(姜今年)(三)은 이십일밤에 시내남대문통 정자옥(丁子屋)백화점에서 가격륙십원 가량되는 남자외투 한벌을 훔처가지고도망하다가마츰그때그곳에서잇든서대문경찰서 우생(羽生)형사에게 발견되어즉시 체포되어방금엄중한취조를 맛고잇다 체포즉시에 그의숙소를 수색한결과 발견된 절취품이 여덜까지나되엇다 취조에따라서 이밧게도범행이더드러날듯하다한다

# 四百餘個印章僞造 同胞救濟金橫領

## 原地歸還費合처二萬餘圓

## 凶惡! 新京領舘員瀆職綻露

今日解禁 【新京】 신경총령사관(新京總領事館)내에돌연지원의 독직사건이 폭로됨과함께 일반시민간에도 일대「센세이슌」을일으키여 신경조선인민회에서는 대표자가 집합하야 긴급회의를 개최하는일방 령사관에서는 고산서장(高山署長)이하 하전검사사무취급(下田檢事事務取扱)기타 간부가협의한결과 질풍신뢰적으로 동사건의 조사에착수하기로하야 하전 사무취급의지휘로형사대를각방면에급파하야조사를개시하는동시에전령사관고원리준근(李俊根)(三〇)을 인치하야취조한바의외에 사건의 전모가발로되는동시에 계획적 으로수년전부터 령사관서 궁민및 조선총독부촉탁등이 공모하야 외무성에서보낸 보조금및 구제금을횡령하고 인장을위조하야 외무성에 보고한 것으로 판명되엿다한다

원외무성고원 리준근은 소화칠년십일월 만주사변 당시에 각지 농민이 토벌에게 쫏겨서 신경과 공주령(公主嶺)방면에 피난하야 왓슬때에 신경총령사관에서는 피난 농민구제방침을 외무성에협의하야 피난민한사람에 하로칠전식의 교부하는것을 긔회로하야 각관계관원이공모하고 피난민 일인에매일오전식을 주기로하고 일인당이전식을 떼먹은후 천원을 령사관우산회계주임(宇山會計主任)의개인명의로 정금은행(正金銀行)에예금하고 다시작년사월동경긔에 원지귀환시에 외무성에서보조금으로 바든일만 일천칠백원을 조선농민에게 지불하지안코 유구서긔생(有久書記生)산촌조선총독부촉탁(山村朝鮮總督府囑託)리(李) 등이 협의하야 백칠원으로 신경성내오마로(新京城內五馬路)성문당인포(盛文堂印舖)에서 조선인명의 인장이백개를 위조하고다시성내륙마로정익인쇄소(城內六馬路精益印刷所)에서 전가티 이백오십개를 위조하야일만일천칠백원을 편취하야 전긔회계수임명의로 정금은행에 예금하엿다한다 전긔 리준근은동금액중에서 여러가지 리유로삼천원을차저서 사용한것이 판명되여, 동성에서는 리준근의공술에의하야 철저적으로 취조를하기로 되엿다는데 사건은점차확대될모양이라한다

# 鑛物篇

# 寶庫朝鮮眞面目 珍標本을一堂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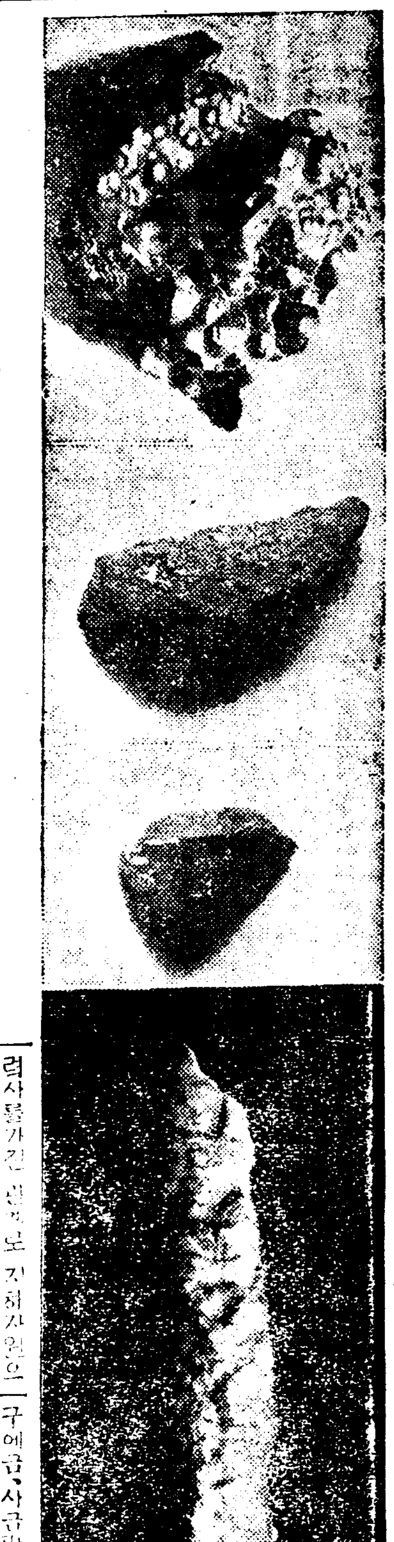
## 黃金의産出譜系를一一圖示

### 博硏、本社主催博物展覽會大觀

오는이십사일부터 열리는 조선박물연구회와 본사 꼿동주최의 조선박물전람회(朝鮮博物展覽會)에서 가장우리네들의 리해와 관심을 심각하고절실하게 끌고잇는광물부(鑛物部)의내용을 이번에는 소개하야 일반관람자의참고에게공하라한다 농업조선에서 로지자본에 실패한사람이나 상업에 실패한사람 또는실업자 그라한꺼번에 몃백만원 몃십만원의 거부를기대하는사람이나 누구나 모다광이와 맛치를들고 산으로 땅속으로광업조선의 힘찬건설을 위하야변부녀증가한다 이에따라 오지음세상은 황금광시대를 일우고마럿다

◇ 원래조선은 지층이 매우장구한 력사를가진 [illegible]도 지하자원으로의각종광물의 매장량이 다른나라가 부럽지안케 다량으로싸여잇다고한다다만농업만이그유일한생산이든 조선사람에게상공의류성이 사회적환경으로도 인하야뜻대로 되지안는 일에이풍부한 리지적 천혜의 지하자본을엇지 눈또지 안흘수잇스랴 이조건을 가지고도 일부전문가이외에는 연구가업든것이 최근에는 전문가이고 일반이고지질조사에 열중하야 조선안에조사된부분이 십분지일밧게 안되엇스나 그산액품질매장량에 잇서서 세계광산공업계를 경이식힐만한 성적을보이고잇다 이미발견된 조선의 광물종류는 일백삼십여종으로 작년 일월까지의종계로 광구는 이천칠백십구구예금、사금광구가 일천칠백여개요 평수는 십륙억의천칠백십구만 사천일백 이십일평으로조선의 사대광물로금、석탄(石炭)철(鐵) 흑연(黑鉛) 에잇서서는 금산액은 이천일백이십일만오천원、철은 황해도재령(載寧)광을 위시하야산액도상당하며석탄은유연탄매장량사억여돈무연탄십삼억사천여만돈합십칠억의사천여돈이고흑연은가장 성적이조흔 영흥(永興)광을비롯하야 그산액이 세계광산공업에재일위를 점령하고 잇스니구구히말할필요도업는것이다

◇ 이박게도 금년충남 연기(燕岐)군에서발견한군용광물의「니켈」함남 단천(端川)의 마네사이드(菱苦土)광은 다가티 세계적이라하며륙대군용광물의중석(重石)수연(水鉛) 만암(滿俺)수은(水銀) 니켈 연아연(鉛亞鉛)도 상당한 산액을보이고 잇다고하니 남어지십분지구의 지질조사가완료될때를 상상하면 미리부터 우리는농연자원과 병립하야 이 지하자원을 백이십퍼-센트로 획득하야 조선의 생산망을 널피는대는이 각종광구의 대표적인 표본을 전람회에 전람하야 어데까지든지 우리네의관심을 한목이광물부에 끄을고저 하는것이다 우선 가장특수하고 일반이 흥미를 끄을표본류칠십종을 진렬하고 그산지、총산액을설명하야 노코더욱 황금광시대에 일반상식의 보급을위하야 금광의 발견에서 출원、채굴제련으로 싯두른 순금덩이가되여 나오는 경로를 도해설명하야벽에붓치고 조선지질도와 중요광산분포지도까지 걸어두어 하로 몃시간만이광물부전람회장에들어가보면세계적인조선광물의종지식을어들만치설비해놀터이다



‖(사진설명)‖ 上으로부터黃海道載寧의褐鐵鑛、濟州島産의大山彈、金剛山産의水晶、寧邊蝀龍窟의鍾乳石 (以上全部徽文高普所藏)

# 鍾路名物傳道館 二十日부터閉鎖

## 米國宣敎部의補助金途絶로 十年春秋歷史남기고

태평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대륙에거츨게부는 경제공황(經濟恐慌)의폭풍은 드듸여경성시내 종로(鍾路)명물의하나인중앙전도관(中央傳道館)에까지영향하야 십여년의려사를가진 그집이 문을닷게되여 저녁마다 종로를 걸으는사람들은 반드시듯든 그유랑한찬미가의주악(奏樂)소리도 인제는드를수업시 되엿다 이중앙전도관은 미국(米國)선교부(宣敎部)에서 대부분은 출자하고 남어지는 시내사직동(社稷洞)삼백십일번지미국인선교사「스록쓰」씨가 개인으로자금을 제공하야 경영하든것으로 서십여년을 하로밤도 빼이지안코종로를지나가고지나오는사람들의옷소매를끌어서는전도하고잇섯다그러든것이이삼년전부터미국본국의 경제공황으로 인하야이래매년 보내든 자금이이할가량식 감소되드니 금년에와서는이이상 계속할수업시 완전히궁하게되여 드듸여 다시자금이윤택하게될때를 기다리기로하고 일을중단하게되여 지난십구일오후 다섯시에 주재자인원익상(元翊常) 목사를 비롯하야 전도사 악사등관원 이십여명이 모혀서 비창한최후의 찬미가주악을드르면서 폐쇄식을 거행하고해산하엿다 그러고 그자리에는 일즉부터 그아래층을 쓰고잇든사회영(社會營)민중의원(民衆醫院)이 기관을확장하야 입원실로 쓰게되엿고 춘풍추우십여년동안을 온갓쓰린비와바람을맛고잇든 「중앙전도관」이라는 카-다란간판도이달말일한도로하고 아주나려버리리라한다 이십여명의 관원중 원익상목사만은중앙청년회에서일을보게되고남어지는모다실직한세음이다 이에대하야 중앙전도관과 함께 십여년을 운명을가티해온 원익상목사는 아래와가티 말한다 재정적 곤난으로 일시문을다드나아주 닷는것은 아닙니다 지금이집에서만은떠남니다명년삼월쯤부터는 다시다른적당한곳에서 이사업을 계속할가합니다 이로인하야 무슨 전도사업이축소되는듯한 생각을 일반이가지는것은 오해일줄압니다 다운운 (사진은업서질간판)

# 溫情의交流 異鄕에서相絡

## 在東京朝鮮人들이醵金 大阪風水災民救濟

【大阪】 동경에잇는동포들로조직된 각단체의연합으로 남조선수해구제회를 조직하고 만흔활동으로 겨우구제사업을 맛치자 때맛츰관서풍수해로 참상에잇는 재주동포를위하야 동회를해체하는그즉석에서다시재동경조선인관서풍수해구제회(在東京朝鮮人關西風水害救濟會)를조직하고 가두의 연금모집과행상등으로 모은돈 삼백칠십여원을가지고 동구제회대표홍일(洪日)고철우(高哲宇)리주영(李周永)삼씨는 지난십일일에 대판에나려와서 풍우를 무릅쓰고 주야로계시(堺市)대정구(大正區)등각구이재지를차저다니며 구제품또는 금전을 이재동포에게배급하며의문을하엿다고한다

# 高麗共黨再組織

## 最近移住朝鮮人赤化目標로 東邊道某僻地에서

모처에온정보에의하면만주에산재한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은최근동변도(東邊道)모처에모히어 고려공산당을 재조직하엿다한다 원래만주내의 조선인공산운동은국제공산당의일국일당주의에의하야 조선인독특의 조직체는전부중국공산당만주성위원회에해소하여버렷든것인데해산위에 근거를두엇다가 일시해체하엿든 고려공산당일파는 최근간도 부근의 근거지를 떠나 지세(地勢)가 유리하고 경비망이물충분한 동변도에 모히어 안봉준(安鳳俊)등이 중심이되어 가지고 고려공산당을 재건하야 만주사변이후 조선인이주자가 격증하는 만주국각지에세포(細胞)조직을 하야 이주조선인의 적화를 도모하는동시에 조선내에도 적극적으로조직선전의 손을뻐치게 되엇다하야경무당국에서는 이주조선인에대한사상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고려공산당의 간선내에미치는모든 영향에대한 엄중한경계를하리라한다

## 貯金通帳을僞造 前後五回詐取

【平壤】 황해도해주출생으로현재 평양부내 신양리(新陽里)리발업(理髮業)안창은(安昌恩)곳은 금년구월이래 허다한주소와 되는대로의 성명으로오십전 내지일원식의 우편저금을하여 통장을밧아가지고 수십원식의 저금을한것처럼 변조한후에 후오회나평양우편국에서합계일백오십원을편취한것이발견되여 평양서에서 수사중 십칠일에야 동인의 소위로 판명되여체포되엿다

이자는 체포될때에도 박성호(朴星鎬)김삼주(金三珠)리신만(李信萬)김일룡(金一龍)등의도장을가지고 잇섯는데 전후다섯번식이나 속은우편국 당국자의부주의도 가관이거니와 속이는 안창은도대단한자이엿섯다한다

# 中學部籠球聯盟戰 第12日

## 中東依然首位

## 東星、二高를이겨 徽文、一高모다快勝

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의 第八回籠球聯盟戰中學部리그第十二日은 二十一日午後六時三十分부터鍾路基督敎靑年會體育館에서열린바 이날第一戰에東星이二高를一進一退하는 接戰끄테이기고 第二戰은全勝의中東을마저 靑學奮鬪하엿스나實力의差는엇지할수업시敗하니 中東依然히首位를占하엿스며 다음으로徽文이京實을 一高가電機를모다크게이겻다

【第一次】 第二高普對東星戰

東星24 (14 10 / 12 11) 23二高

審判은 關六時三十分부터金振秀 李惠澤兩審判下에開始되바 結局二十四對二十三으로東星勝

| 反 | 前 | 後 | 【東星】 | |
|---|---|---|---|---|
| 2 | 1 | 0 | 宋再慶 | F |
| 1 | 5 | 6 | 全春根 | F |
| 1 | 2 | 1 | 崔宗奎 | C |
| 3 | 2 | 4 | 金京化 | G |
| 1 | 0 | 3 | 鄭乙釆 | G |
| 8 | 10 | 14 | | |

| | 【二高】 | 前 | 後 | 反 |
|---|---|---|---|---|
| F | 金善奎 | 2 | 1 | 4 |
| F | 李成勳 | 0 | 2 | 1 |
| F | 鄭容淳 | 1 | 2 | 1 |
| C | 李鍾麟 | 4 | 2 | 0 |
| G | 崔殷泪 | 2 | 2 | 2 |
| G | 成樂勝 | 2 | 3 | 0 |
| | | 11 | 12 | 8 |

【第二次】 中東對靑學戰은同七時二十五分부터張權、田炳維兩氏審判아래開始되바 結局六十八對二十一로中東勝

中東68 (30 29 / 14 7) 21靑學

| 反 | 前 | 後 | 【中東】 | |
|---|---|---|---|---|
| 0 | 2 | 0 | 洪憲錫 | F |
| 1 | 0 | 9 | 李容權 | F |
| 0 | 6 | 14 | 申光浩 | F |
| 0 | 1 | 14 | 金致雲 | C |
| 2 | 0 | 5 | 孫仁植 | C |
| 0 | 2 | 3 | 辛在龍 | G |
| 2 | 0 | 1 | 李龍寬 | G |
| 1 | 8 | 3 | 朴東漢 | G |
| 6 | 29 | 39 | | |

| | 【靑學】 | 前 | 後 | 反 |
|---|---|---|---|---|
| F | 金昌煥 | 2 | 0 | 1 |
| F | 康泰善 | 0 | 0 | 0 |
| F | 崔志雲 | 0 | 3 | 3 |
| C | 潘戊甲 | 3 | 11 | 3 |
| G | 李泰燮 | 2 | 0 | 1 |
| G | 趙閔奎 | 0 | 0 | 1 |
| | | 7 | 14 | 8 |

【第三次】 徽文對京實戰은同八時十三分부터 金化永、宋基善兩氏審判아래開始되바 結局六十九對二十으로徽文勝

徽文69 (24 42 / 12 8) 20京實

| 反 | 前 | 後 | 【徽文】 | |
|---|---|---|---|---|
| 0 | 8 | 10 | 閔泳夏 | F |
| 0 | 10 | 4 | 簡正武 | F |
| 1 | 0 | 0 | 尹泰順 | F |
| 1 | 18 | 6 | 金容武 | C |
| 1 | 2 | 4 | 金篤敎 | G |
| 1 | 4 | 0 | 劉鎭權 | G |
| 0 | 0 | 0 | 申鳳浩 | G |
| 4 | 42 | 24 | | |

| | 【京實】 | 前 | 後 | 反 |
|---|---|---|---|---|
| F | 朴聖基 | 0 | 2 | 0 |
| F | 金宇鎬 | 0 | 0 | 0 |
| F | 金東鎬 | 1 | 4 | 2 |
| C | 吳哲鎬 | 3 | 6 | 1 |
| G | 黃午知 | 4 | 0 | 1 |
| G | 柳文基 | 0 | 0 | 2 |
| | | 8 | 12 | 6 |

【第四次】 第一高普對電機戰은同九時부터孫禧俊、李惠澤兩氏審判아래開始되바 結局四十三對二十二로一高勝

一高43 (22 21 / 11 11) 22電機

| 反 | 前 | 後 | 【電機】 | |
|---|---|---|---|---|
| 3 | 4 | 2 | 朴萬夏 | F |
| 4 | 2 | 0 | 金相勳 | F |
| 0 | 0 | 0 | 朴勝和 | F |
| 4 | 0 | 2 | 洪和模 | C |
| 0 | 4 | 7 | 趙哲柱 | G |
| 0 | 1 | 0 | 金義植 | G |
| 11 | 11 | 11 | | |

| | 【一高】 | 前 | 後 | 反 |
|---|---|---|---|---|
| F | 吳錫烈 | 4 | 4 | 4 |
| F | 許鎬九 | 0 | 0 | 0 |
| F | 趙昌九 | 8 | 8 | 3 |
| C | 安致恒 | 6 | 6 | 4 |
| G | 鄭寅朝 | 2 | 2 | 1 |
| G | 韓順成 | 1 | 0 | 4 |
| F | 車灝濟 | 0 | 2 | 1 |
| | | 21 | 22 | 17 |

## 籠球聯盟戰續 ◇第十二日現在◇

| (順位) | (試) | (勝) | (敗) | (率) |
|---|---|---|---|---|
| 1中東 | 6 | 6 | 0 | 1.000 |
| 2徽文 | 8 | 7 | 1 | .875 |
| 3大東 | 6 | 5 | 1 | .833 |
| 3養正 | 6 | 5 | 1 | .833 |
| 3儆新 | 6 | 5 | 1 | .833 |
| 4一高 | 8 | 5 | 3 | .625 |
| 5道商 | 7 | 4 | 3 | .571 |
| 6培材 | 6 | 3 | 3 | .500 |
| 7靑學 | 7 | 3 | 4 | .428 |
| 8協成 | 5 | 2 | 3 | .400 |
| 9京實 | 7 | 2 | 5 | .285 |
| 9東星 | 8 | 2 | 6 | .285 |
| 10二高 | 7 | 1 | 6 | .142 |
| 11公民 | 6 | 0 | 6 | .000 |
| 11電機 | 7 | 0 | 7 | .000 |

## 靑年部籠球리그 來月十一日

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의 第八回籠球聯盟戰 靑年部리-그는 來十二月十一日부터 鍾路基督敎靑年會體育館에서 開幕될터인바 參加希望團은 十二月六日까지每團選手十名을明記하야 主催側에 申請하게하며 出場資格은永續性이잇고 學生을包含치아니한團體에限한다고한다

### 今日의運動

▲籠球聯盟戰第十三日‖東星…大東 養正…培材 協成…公民 大東…二高 (午後六時半부터YMCA서)

清道朴壽鉉精米所復舊
每日一千五百叺精米
能率은從前三倍
職工은百五十名
各方面의同情集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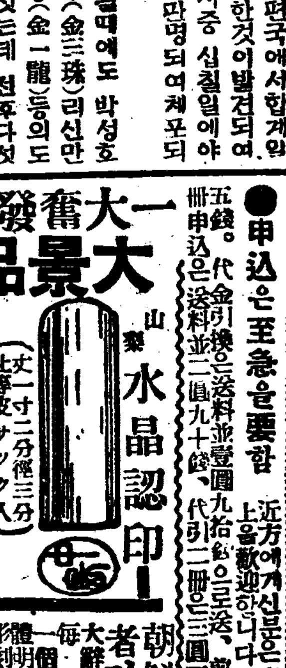
外用常備藥
一二三
定價 二十錢 五十錢 一圓
근질근질하고뜨끔뜨끔압푸게한皮膚病을退治합시다!
全國有名藥店에잇슴
主効 ...
本舖 師岡天然堂 東京市神田區
115

主任 書秉學
洪錫厚診察所眼鏡部
檢眼 無料
檢眼 洪錫厚博士擔任
京城鍾路靑年會館 電光二二二八

宮內省侍醫前拾村博士創製
泄瀉・腹痛
헤루푸 (ヘルプ)
胃腸病第一靈藥
食傷・吐瀉・消化不良・胃腸加答兒等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突飛無謀의大亂賣
定價三圓을特別景品付半額提供
단지壹圓五十錢으로投賣
特製豪華版 紙數二千二百餘頁
クロース金文字入特裝美本
堅牢函入・裝飾的美本
木版革書二千餘個入=內容豐富
解書界驚異・母子二萬三千餘
보라・熟語解釋無慮十二萬語
總頁約二千二百頁
本辭書는右記載와如히堂堂二千二百餘頁의大冊、特上製本으로厚는實로二寸八分이。內容은가장最新式。普通學校만卒業하고도自由自在로차저볼수잇서實로理想的인辭書。今回一千部限하야至急換金키爲하야破格의廉價로投賣함。殘本、古本이아님、昭和九年度의最新刊
●申込은至急을要함
近方에게신분은來店實物보신後買上을歡迎하나다小包荷造送費二十五錢。代金引換은送料並壹圓九拾錢으로送、前金으로一時에二冊申込은送料並二圓九十錢、代引二冊은三圓三十錢에送

一大奮發한景品
大 山梨水晶認印 (丈一寸二分徑三分 上等皮サック入)
御姓名彫刻付
朝鮮日報愛讀者라고明記漢和大辭典注文者에限하야每一冊에上記의水晶印一個式을呈함 姓名은書式으로明記하시압 彫刻은三字以下로限한後入念送함 但字數는
無代進呈
●東京神田小川町一ノ五 振替東京一五〇四
積文堂特賣部



二十一日より大公演
ユニヴァーサル提携披露記念超特別大興行
『にんじん』ば『昨日』に 父なき子の淚あれば母なき子の淚がある 情けは國の東西を問はず人の子の母の愛は永遠に甦らじ世の女性よ!! 之は貴女のものだ!!
上映順
一、M・G・M・特作日本版 監督 ウォルター・ラング 主演 ジャン・パール ジミイ・デュラント
獸法蝶男爵
戀地に置て掘りを食ったオンボロ從者二人が粒とした男爵と教授に成りすまし美人揃ひの女學校に乘り込み兩人得意の獸法螺吹き競べ!!
二、ユニヴァーサル特作日本版 監督 ジョンMスタール 主演 マアガレットサラバアン
昨日
純情十九の乙女に興へられ春霄の一刻は『男』には一夜の抱擁であり『女』には人生の凡てだったのだ!!米國映畫本年度隨一の文藝映畫の最高峯!!
明治町一 電本三七 浪花舘

當ル廿日特別封切(五日間)
晩秋映畫戰線を飾る新興全勝主義絕好のプロ!!久方振りの阪妻プロ大壯擧獅子奮迅の大猛闘篇を見られよ!!
大衆奉仕階下大人卅錢小人廿錢
新興キネマ本秋提供
阪妻プロ超弩級時代劇 脚色 鈴木史郎 撮影 吉田英男 監督 長尾史錄
血吸雪伊勢音頭 全拾卷
阪東妻三郎大熱演 毛利峯子初共演 泉清子、櫻木梅子、松井潤子、橘喜子、外阪妻プロ總動員出演
新興キネマ現代劇部超弩級作 雜誌『維新』所載 竹田敏彦原作 曾根千晴監督
東鄕盃 全拾卷
荒木忍、松本泰輔、森靜子、沖悅見主演 世界の偉人!!護國の神 國民の師表!!故東鄕元帥が非常時國民に興ふる感動篇
ユニヴァーサル超弩級日本版 アラン・チェームス監督
凱歌の騎士 全七卷
ケン・メイナード氏主演
永樂町 電本二 中央舘

# 農地令實施도不拘 小作爭議依然頻發
## 立稻不刈、作料不納等等으로 當局에調停申立逐至

【大田】 대전군유천면(儒川面) 파리성면(杞城面)일대를위시하야 론산군 련산면(連山面) 피양촌면(陽村面)등지에서수천두락의 토지를가진 대구부호리장우(李章雨)는 소작인에게 해마다 지세의반분을 부담시킬뿐아니라 금년에는 더욱도조를빗싸게매엿슴으로 일반 소작인들은 일년동안피땀을 흘리고지여노흔 농작물을 모조리빼앗길생각을하고 모도가 공포중에잇다가마츰내 그무리함을 참지못하야괴성면 일대의 수십소작인은 지주에게 작료의상당 감하를진정하얏다 만약듯지안흐면 전부납부하지안흘리라를 보 지주는 일할내지 이할을 감하하야준다고언명하얏스며 론산군 양촌면일대에서도 소작인들이 벼를베이지아니하고 소작 조정령에까지부치게되여 지주도 하는수업시반작(半作)을 하기로 하얏다고한다 금년은 농지령이 실시 되엿슴에도 인지무슨 더우이지는 알수업스나 리지주뿐아니라 조선제일의 지주인 동양척식회사(東拓)에서도공주지방에 과다한소작료를 요구하야아직 벼를베이지아니하고 항쟁하다가 하는수업시 조정령에부치게까지 되엇다고일반은 비난이 만흔한아니라충남소작게(忠南小作係)에서도철저한 방침을 세우리라한다

### 無理한請求는 絶對容認不能 安小作官談

별항보도와가티 각지에서 일어나는 소작쟁의와 지주들의무리한청구에 대하야 충남안소작관(安小作官)은 다음과 가티말하얏다

소작인에게 너무나 무리한소작료를 청구하는 지주들은아주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몽매한소작인들은 떨어질가두려워 벙어리가슴 알트흔자만 알르면서 그대로납부하는사람도 잇겟지만 대개는이에 반항하지안흘수 업게되니까소작쟁의가 일어나게 되다 이럼으로 소작쟁의의 책임자는소작인이 아니라 지주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지세를 밧는지주와말세(斗稅)를밧는것은절대부당한것인까닭에이와가튼 무리한 행동은용인할수업다

# 改設不過數朔에 農民訓練所破綻
## 學課時間과休日增加를要求코 全所生徒一齊盟休

【載寧】 지난특별재령농민훈련소(載寧農民訓練所)생도십일명은 학과시간증가와 휴일증가등을요구하고 동맹휴학을 단행하여 학교당국에서는 학부형을 방문하는등 예이진압에 노력하엿스나 생도측의태도가 강경하든바 지난십구일 반수이상의생도가 보호자련서로 퇴학원서를 제출하엿슴으로 동훈련소는당분간 폐소되리라고한다●

그자세한 내용을들은즉 대정십삼년일월에 설립된 재령공립농업보습학교(載寧公立農業補習學校)를 지난구월에학졔를변경하는동시에재령공립농민훈련소(載寧公立農民訓練所) 라고개칭하고교수는실습이본위로되여 학과시간은하로에몃군한시간밧게안이되고종래에엇든가정실습제도와 일요휴일제도까지 전폐되고괴숙사 제도가 제정되자일단입학케되면 졸업할때까지 전혀자유를 일케되다고 하며교수시종시각도 학교장이 임의로정하게되여 엇던때에는 새벽부터 해질때까지 로동하게 되엿스므로생도들은 그곤연을 못이기여드듸여 동맹휴학을 하고퇴학을 자원하게 되것이라고한다. 학교당국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와가튼 물상사가발생케된것은 넘어도리론에 편중하야학과층을 제정하엿기 때문이라고하며 현재생도의 체력으로는 괴숙사생활의 자작자급(自作自給)을하여나갈수업다고하며농민훈련소는 금년첫시험으로 대단히유감된일이라고한다

## 母親回甲을記念 乞人에衣服製供 仁川安基榮氏特志

【仁川】 인천고무공업소사장안긔영(安基榮)씨는일즉이인천부천(富川)량부군의빈민천여명에게 량미를 구급한바도잇거니와 씨는원래물상한사람을 구제하기조와하는 성격을가진 청년실업가로서 오는 이십삼일이 그모친의 회갑인데 그회갑에쓰는경비를 절약하야 동복수십벌을지어가지고 인천시내에 홋터진걸인등 구급하여달라고 본사인천지국에 의뢰함으로 그부탁을바든 본지국은 국원이총출동하야 걸인중에도 제일가긍한안진방이 꼽사등이 절둑발이와조실부모하고 의지업시 방황로숙하는 걸어수십명을조사하야 지난십구일에 바지저고리 양말까지일일히 배급하엿다

사진 걸인들에게 의복을배급한광경

## 身元不明의老人 列車에觸死

【咸興】 지난십팔일오후일곱시오분함흥의착제오예이십확호남행렬차가 함흥역구내에 들어오려고 할지음『푸렛트홈』에서는오십세가량되여보이는조선로인이렬차에머리를부닷치여즉사하엿다는데 신원은 전연알수업다고하며 회중에는 일원짜리지폐한장이잇섯다고한다

## 無産學童의慈父 張漢翊氏特志

【淸州】 교육기관의부족과또는 학비가업서 허다한소년들이 문맹에서 방황하는이때에 학비까지자담하야 그들을 가르켜준다고나선 독지가가 잇다!! 청주읍금정 룡흥사포교사(錦町龍興寺布敎士) 장한익(張漢翊)씨는 청수정(淸水町)에다 교사를 정하고 일체비용을 자담하고사설

## 新發明特許된 "電氣警報裝置機" 鄭丙鐸氏苦心結晶

【麗水】 전남려수양의전동양메라상회(メーダ商會)정명택(鄭丙鐸)씨는 지난칠월일일에전괴경보장치괴(電氣警報裝置機)=일명=門締表示機)를발명하야 내무성특허국에 특허원을 제출하엿든바 무난히 특허국의심사를통과하야 지난달 사일부로전매특허권을 획득하엿다 동씨는 당년이십오세된 성격이 유순한 청년으로 일즉이 보통학교를 졸업하고괴계수선업을하고잇스면서 항상발명에 뜻을두고시광괴(試鑛機)를 연구하든중 전괴전괴경보장치괴를발명하야발명가들의눈을 놀라게하엿스며 이미 특허권을 엇고다시 시광괴에 대한 연구를 맛치고이어지난달 십이일부로 특허원을또제출하엿다는데 이것의소괴목적을 달하게된다면 세계적으로 자랑거리요 열광적으로 발흥하는목하의 광업게에 일대혁명적신괴원을 지으리라고 기대된다고한다 (寫眞…鄭丙鐸氏)

## 留置中에死亡

【海州】 마약취체법위반(麻藥取締法違反)사건에관련되여 해주경찰서에 인치 구류중에잇든 진남포(鎭南浦)출생의 김철수(金哲壽)(四〇)는지난십구일오전칠시반경 동서유치장에서 돌연사망하엿다는데 지공의(池公醫)가시체를해부검시한결과 심장마비(心臟麻痺)로판명되엿다

## 本報平壤支局後援 西平壤力技團 第二回力藝大會 二十三、四兩日間— 崇實體育館에서

【平壤】 서평양력기단(西平壤力技團)에서는 전조선 순회를끗마치고 그동안 연구에연구를 거듭하여오든중 이번제이회로 그숙련된 기술을발표코저본사 평양지국후원미테 오는이십삼、사량일간 매야 오후칠시반부터 부내 신양리(新陽里)숭실체육관(崇實體育館)에서제이회력예대회(第二回力藝大會)를개최케되엿다 력예종목은 력기(力技)、철봉(鐵棒)、곤봉(棍棒)、「뻬다마트」「써-커스」 괴합술(氣合術)등 이십여종이라는데 벌서부터 인괴는 각방면서 집중되고잇서서 대성황을 예괴하고잇는데 입장자에게는 장래정리하기위하야 실전권일로 밧게되엿다한다

### 地方人事

▲鄭樂豐氏(松林面長)新任人事次 去十七日本社兼二浦支局來訪

## 漁凶에울든元山에 明太魚大豐獲 一日四百餘駄上陸

【元山】 원산은금년봄이래로 고기가 잘잡히지안허서 수백명어업자를비롯하야이어산물에간접의관계를가진수천명시민이대불안에싸여잇다함은긔보한바어니와십일일경부터는원산의명산인명태(明太魚)가잘잡히기시작하야 바야흐로성어괴에 들어간다는데 지난십구일 이십일에는일일평양고가사오백태(駄)에달한다는바 이로말미암아 원산리해안 일대는어부와 한산로동자상인등으로 대혼잡을 일우웟다는데 엇던어선은하로에 사십여태를 잡는성황인바 어가는작년보다 다소저렴한편으로 일태에삼십칠원내지사십원이라는데 이명태의성어와함께명란(明卵)을 만히제조하는바 지난시일일평양고약일만원이라고한다 일월에들어서는 십구일까지에 발서이천오백통에달하엿다는바 한통(오관통)에십일원오십전 월에는 일천이백통이든 것이십내지십이원의고가라고한다

## 穀物檢查所 復活의曙光

【白川】 황해도백천에잇든곡물검사소인천지소백천출장소는 작년십일월경에폐지되엿이후곡상에게불편은물론백천발전상에대한손실이라하야작년부터각처으로 각관게당국에 파견하야 부활운동을매럴히하여오든바지난이십일인천지소소장데리상대희평(相澤喜平)씨와해주검사관송연송치랑(松浦常治郞)량씨가 실지 조사차로 래백하여온천면회의실에서 상공업자각게 유지들과협의한결과 멧칫으로 부터 부활의뜻을밝하므로일반은매우만족하야축석에서거사청사까지 신축키로 결의하엿다한다

회상강습소를 창립하야 거칠일에 개강하엿다는데 도한좌괴계씨는 무보수로 가르치게되엿다고한다 金殷洙 金永皓 曹秉璣 黃奇鳳 洪乙生

## 瑞興 海西蹴球大會

▲時日 十一月二十三日
▲場所 瑞興그라운드
◇主催 瑞興體育會蹴球部
◇後援 朝鮮日報瑞興支局

## 平壤 第二回力藝大會

▲時日 十一月廿三、四兩日間午後七時半
▲場所 新陽里崇實體育館
種目 力藝、力技、鐵棒、棍棒、피라밋、體育써-커스、氣合術
◇主催 西平壤力技團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 大邱 第六回全朝鮮蹴球大會

▲時日 十一月二十三、四兩日間
▲參加團體 青年릉、中學릉、少年릉
◇主催 大邱蹴球協會
◇後援 朝鮮日報社大邱支局

# 火賊林巨正 (40)
洪碧初作 安碩柱畫

청석골三의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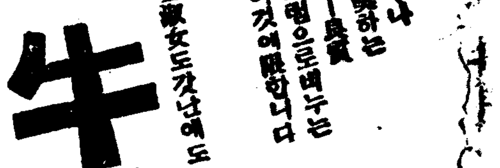
한온이가 나제는 도중일을 보느라고 큰집사랑에 만히가잇고 또 밤에는 첩들의집으로 돌아다니고 꺽정이 잇는집 건느방은 명색 자긔방으로 쓴다고 만하얏지 밤에와서 자는일이 둥히 업술뿐아니라 나제와서 안는일도 별로업섯다 밤낫 비여두는방에 화로불을 담앗다 파냇다하고 초불을 켯다꼇다하고 이부자리를 깔앗다개켯다하는것이 공연한 군일가터서 상노아이는 성가시게생각하야 로밤이더러 「건너방을 아주 폐방하두록 해보겟소」 하고 물으니 「폐방하두룩 하느니 우리가 쓰잣구나」 하고 로밤이가 대답하엿다 「누가 우리더러 쓰랍디까」 「우리가 쓰면 쓰는게지」 「청석골 대장께서 맙습하시면 혹시 쓰게될까 그외엔 누가 맙하든지 어렵업소」 「너의 주인냥반의 허락은 나중 바들셈 잡구 우리들이 오늘밤부터 건느방에 들어가서 자잔」 「들키면 경칠터구요」 「밤중 지난뒤 들어가 자구 엇득새벽에 넘어나 나오면 들킬까닭이 업지안흐냐」 「누가 그따위 구차스러운짓을 한단말이요 나는 실쏘」 「실커든 고만둬라 나혼자들어가 잘테다」 예날밤부터 안방의 꺽정이가 취침한뒤에는 로밤이가슬그머니 건느방에 들어와서한온이의 이부자리를 깔고덥고 자다가 새벽녁이면 박갓방으로 나가서 개잠을 잣다멧칠지난뒤 어느날 아침에 한온이가 건느방에 와서 무슨문서를 끄내려고 하다가 문서려우에 니한마리가 긔는 것을 보고 다시 살펴보니 과는놈외에 업드린놈도 잇는데 마리수가 하나둘이 아니엇다 한온이는 니도 잡지 안코레도 엿지 안코큰소리로 상노아이를 불럿다 상노아이가 바게서 들어오자 한온이가 곳 궤우를 가르치며

「이리와서 이거좀봐라 이거 무어냐」 하고 소리질럿다 「나올시다」 「누가 니를 몰라서 뭇느냐 이놈아 이니가 대체 어듸서 떠진게냐」 「몰으겟습니다」 「몰으다니 너외에 또이방에 드나드는사람이 누구냐」 상노아이는 여깃 로밤이를 대려다가 령이 되거든 대려고 골껴참고 아무소리아니하얏다 「니가 져우에까지 올라왓스니 보료에 업슬리가잇나」 하고 한온이가 가만이 보료를 드려다보더니 「이거봐라 여긔 전판 니로구나」 하고 벌떡 일어섯다 왕니 가랑니가 보료바닥에서 술술 긔고 또 보료가장자리에 주줄이 매첫섯다 한온이가 은몸이 군실거리고 눈아페 해끔해끔한것이 모다 니로 보이엇다 「누가 니를 갓다 방에다 뿌렷단말이냐 이게 대체 웬일이냐」 하고 한온이는 옷자락을 떠느라고 한참 정신이 업섯다 건느방니소동에 꺽정이는 안방에서 나오고 로밤이와달은 아래사람들은 박갓방에서 들어왓다 로밤이가 한온이를 보고 「사람업는 빈방에서 사는니는 복니올시다 죽이지말우 가만둡시요」 하고 말하는데 한온이가 물메인소리로 「복니란게 다무에야」 하고 핀잔주듯말하니 로밤이가 다시 상노아이를 보고 「복니를 죽이라시거든 잡어서 나를 다구 내나 취종하겟다」 하고 말하얏다 상노아이가 니를 멧마리 잡아서 「옛소」 하고 내주니 로밤이는 정성스럽게 바지괴춤을 벌리고 바더너헛다 로밤이가 니를쥐종한다고 괴춤으로 밧는거동이 우수어서 덜은사람은 고사하고 한온이까지 우슴을금치못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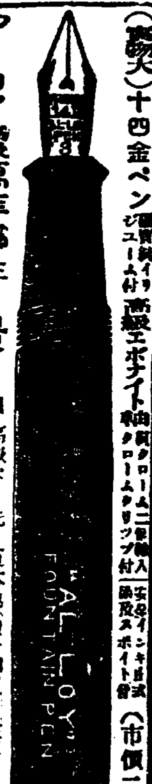
淋病 治療와性病豫防에絶對權威
プラオンギン ケンゴール 겐골
本劑는、前東京吉原遊廓吉原病院長으로十數年在任하시든佐藤榮先生이多年實驗과學理에基하야가장合理的인局所銀劑로完成發表한것인대、多數專門家의臨床實驗에依하면、治淋劑로서의最重要點인深達、殺菌、消炎三作用이敏速的으로治療期間을極端으로短縮할수잇는點이다。그리고殺菌力이매우强烈하야〇、五乃至〇、八瓦(即尿道粘膜에塗布하는程度)의極少量으로、使用一回마다그效果가顯著히나타나고洗滌入藥等가티藥液과함께淋菌을後部에送入할念慮업고따라서攝護腺炎、副睾丸炎等을倂發하는것가튼念慮는絶對로업고도리혀이런염녀를豫防하게되는것은、더욱本劑가實驗을博得하는바이다。또다시本劑는性病豫防으로使用하야도、前記와가티殺菌强烈하야事後數時間後의使用이라도그作用은絶對로發能을期待할수잇는것이다
于先文獻으로本劑의知識과實驗報告及成績等을아시랴希望者는發賣元으로葉書로申込次第送呈
新發賣(普及品) 一圓九十錢
二〇瓦入(約十四日分)三円 五〇瓦入(約三十五日分)七円 八〇瓦入(約五十七日分)十円
東京市芝區三田綱町 日東製藥合名會社
(頒布用綻劑其他附屬品付、但婦人用에카프셀을添付함)全國有名藥店에서販賣
SK-20

ライトインキ 라이트잉크
滿足 이말은 ライト愛用家의 一致的批判!!!
(大瓶、小瓶各種……全國의文具店에잇슴)
2オンス入 スポイド付 正價30セン
篠崎インキ製造株式會社 東京

●感嘆!! 感嘆!! 정말頭痛 ノーシン 노-신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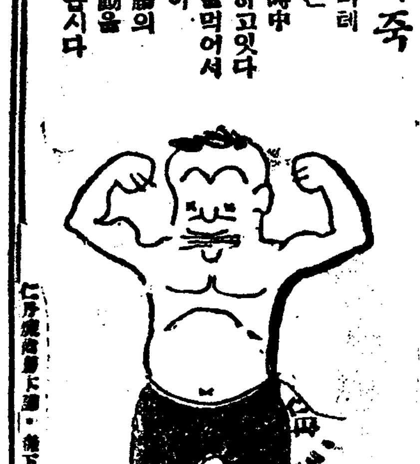


紳士淑女도갓난애도 누구나 賞讃하는 高貴 그럼으로써우는 이것에限합니다
牛乳石鹼 No. 304



(贅沢)十四金ペン
アーロイ高級萬年筆 三景品附特賣
新製宣傳景品附特賣 本萬年筆 大サービス
(市價二円ノ品)特別元價只の七十錢(品質三年保證)
製造元 鈴木合名會社 東京市宮園通三丁目 振替東京九九八六番

重症用 毒掃丸 독소환
梅毒에는學理上의理論과臨床上의實驗에依하야된沃素療法을……
重症用毒掃丸은許容最大限度의沃素量根幹으로한最新製劑요。
初期梅毒、慢性梅毒、潛伏梅毒、先天梅毒、冷毒、小兒胎毒、梅毒性皮膚病、同神經痛、同류마치스、橫痃、瘰癧、惡性여드름、動脈硬化、甲狀腺腫、萎縮腎
藥價 重症用毒掃丸二圓、三圓、五圓、十圓、廿圓、卅圓 普通用五十錢、一圓、小兒用卅錢、五十錢、一圓
東京神田花房町 株式會社山崎帝國堂(振替東京一四六七番)



이가죽 한겹미테 胃腸는 四六時中 苦鬪하고잇다 仁丹을먹어서 不絶히 胃腸의 活動을 도웁시다
寒疫の心配も御無用 適用せよ大粒仁丹 廿五錢 五十錢 一圓
◇全國有名藥店にあり

기침에 コデチン 코데진
닥처오는 流感期! 輕한기침도放心말나
適應症 痰咳、氣管支가타루、肋膜、肺炎、百日咳、小兒咳其他신열기침
コデチン은醫界에定評잇는鹽酸지히로고인과祛痰劑의사보닌體를共濟劑로써이것을服用하기쉽게하기爲하야맛잇는시롭부의形態로配合식힌特殊藥임으로特히藥실혀하는老人、婦人、小兒가다조와하야『먹기조코잘듯는다』고하는好評을맛고잇습니다。廉價를試驗하십시오
【定價】三〇錢 五〇錢 一圓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東京市神田區かぢ町大通 支店 大阪市東區淡路町

齒痛과 頭痛의 は 먹으면낫어 散効田
神經痛鎭定、神經衰弱强壯、神經痛 루마지스等 奏効優秀 泣顔도 笑顔으로變함
本舖 東京 大阪

五合米 八升가의으로 カタログ 穀物膨脹機 金儲有
두통과치통에 노-진

◇十一月二十一日부터第二回公演日
劇團新舞臺冬期公演第二週푸로 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五錢均一
躍進新舞臺의威容當當히上演되는不朽의二大名篇
◎林仙主作 朝鮮初有의大舞臺劇連鎖大레뷰
◎春史編 時代劇 開化 全一幕二場 學生街 全十一場

◇十一月二十三日부터第三回公演日
劇團新劇 冬季公演最終週間!
今年度로서最後에上演되는다시못보는二大名篇!
二大連鎖劇 ◇佛面鬼編 古代小說의連鎖劇洪吉童傳 映畵實演 二十餘場
◇春史原作 全員總出演 現代劇連鎖劇 내가죽인女子 映畵와實演十餘場 珠玉篇 幕間獨唱、스것취짜스벤드
麻浦桃花洞 電龍一三一三 桃花劇場

滿都人士待望이오래시든新舘落成式도이제는不過一旬餘
暖房、防音、冷却、衛生의네가지裝置가잇고喫煙休息室、茶房單座式椅子等새로운設備가잇다 再生裝置의優秀함은自他共認한지오래거니와直寫裝置와白熱反射燈과調光器의整備는全鮮第一의代表的娛樂場으로興行界의最先端에서외여질날로滿都諸兄姉여記憶하사이다不過一旬餘에迫到하엿다
▲十二月上旬! 十二月上旬!!
━第一週의三大巨篇━ 豪華絢爛의極致篇 豪壯眞美의悦惚篇
祝杯의노래 빠 자 1010
優秀名作의驚歎陣은? 알푸스의大血戰、靑春物語、마을의綠野、泰西俠盜傳、空中벌크레오파트라、어머니의손、도도、런러라、흘러가는靑空、肉彈鬼中隊、絢爛한殺人、昨日勝利의아침、
十二月上旬開館確定 新築中 團成社

# 朝鮮鑛業令解說 (三)

辯護士 辛泰嶽

(B) 鑛業과 다른企業과의 競合, 이러한 境遇에 어느것이 優越하냐 하는 때에 對하야는, 前述한 鑛業權互相의 境遇와 同一한 標準에 依하야 決定할 것이다。『작센』 鑛業法(三四八)에는 明文이 잇다。 右企業中에는 電氣事業, 瓦斯事業도 包含되는 때, 既述한 바와 가티 是等事業이 土地收用令上의 公益事業이라고 하야 一言而蔽之하야 鑛業에 優越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것이 아니다

(C) 鑛業과 公用及公共用과의 競合 大體로는 勿論後者가 優越할지나 境遇에 따라서는 鑛業이 優越한 때도 잇슬수 잇다 (A)에서 述한 바와 同一한 標準에 依하야 問題를 決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센』 鑛業法(三四九)에는 明文이 잇나 다만 이미 公用 公共用에 쓰고잇는 土地에 對하야는 鑛業所轄官廳에 對하야는 土地使用의 規定을 强制할 수는 업다

(D) 鑛業과 公益과의 衝突。 이것은 土地使用의 目的인 工事又는 工作物이 公益을 害하는 境遇인데, 이가는 대는, 土地의 使用 그것이 公益을 害하는 境遇(例하면 名所舊蹟을 破壞하는 것)와, 그 土地에서 鑛業을 하는 것이 公益을 害하는 境遇(例하면 그 土地에 製鍊場을 設하고 製鍊을 하는 것이 公益을 害하는 境遇와 가튼 때) 두가지가 잇다。 이러한 때에 土地使用을 許치 못할 것은 當然한 일이다。

上述한 要件이 具備하는 境遇에는, 鑛業權者에게 土地使用權 設定의 請求權이 發生한다。 그러나 이 請求權에 基하야 곳 土地所有者에게 土地使用權의 設定을 要求할 수는 업다。 以下에 述하는 土地使用의 出願及許可의 手續을 經由하야 이를 行케 된다。

## 三、土地使用의 出願

『……朝鮮總督의 許可를 受하야 他人의 土地를 使用又는 收用할 수 잇다』(同令 第三十二條一項) 한다는 規定에 依하야 明白한 것가티 上述한 土地使用에는 朝鮮總督의 許可가 잇슴을 要한다。 따라서 이 許可의 出願이 必要하나 이 出願은 土地使用權設定의 要求인 것이 아니라 土地使用權設定의 請求存在의 確認을 求하는 것이다。

## 四、土地使用의 許可

이 許可는 右記 出願에 對한 것으로, 土地使用權設定의 請求權存在를 確認함을 內容으로 하는 行政處分에 屬한다 따라서 土地使用權을 設定하는 것이 아니라 土地收用令의 公益事業의 認定과 그 性質이 同一하다。 이 點은 鑛業令 第三十二條 第二項 『卽 土地의 使用又는 收用에 對하야는 土地收用令 第七條乃至第二十六條의 規定에 依한 但同令中(中略) 事業의 認定又는 朝鮮總督의 認定이라고 함은 第一項의 許可, 同令第八條 第十三條及第二十一條中第四條의 許可(下略)로 한다』는 規定을 봄다고 하지라도 明瞭할 일이다。

이 許可의 性質에 對하야는 土地가 鑛業上必要하다 又는 土地가 鑛業上必要하고 目的할을 認定하는 것이라고 普通 說明하나 이는 唯獨目的又는 土地의 必要의 認定에 止치 안음으로 이 說은 正確하다고 할 수 업다。 又 土地使用의 許可를 가지고 設權行爲라고 하는 說이 잇스나, 鑛業令 第三十二條 第三項, 土地收用令 第八條의 規定에 依할지라도, 이 說이 適當치 안음은 알겟다。

所述한 土地使用權設定의 請求權發生要件이 存在한 境遇에는, 國家는 土地使用의 許可를 與할 義務가 잇다。 따라서 許可를 拒否한 때, 日本鑛業法에서는 訴願又는 行政訴訟의 提起를 許(同八九條)하나, 朝鮮鑛業令에는, 어떠한 規定도 업다。

그리고 朝鮮總督의 『許可를 바든者는 使用又는 收用할 土地及 許可年月日을 關係人에게 通知』(同令第三十二條二項)하여야 한다。 이에 關係人이라고 함은 『使用又는 收用할 土地에 關하야 所有權其他의 權利를 가진者를 가리친다』(同令第三十四條) 그리고 右記한 『通知가 잇슨 後 그 土地에 關하야 權利를 取得한者는 關係人이라고 하지 안음 但既存한 權利를 承繼한者는 此限에 不在함』(同上第二項) 또 右記한 『土地에 關하야 所有權其他權利를 가진者』에는 土地에 關하야 所有權, 擔保物權은 勿論, 用益物權, 用益的債權(賃借權, 使用借權) 等을 가진 者도 包含한다 그리고 抵當의 債權者도 包含한다고 함이 正當하다。 왜그러냐하면 抵當權의 債權者도 權利를 가진 以上은 當然히 土地의 使用權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反對說이 잇스나 贊成키 難하다。

土地使用權의 發生에는, 土地使用의 許可를 要件으로 함으로, 이 許可는 土地使用權이 나함을 區別하는 標準이 된다。 또 이 許可의 通知가 잇스면 이 通知後에는 地方長官의 許可를 受치 안코 土地의 性質을 變更하고 工作物의 新築, 改築, 增築 又는 大修繕을 行하고 또는 物件을 附加增設한 때는 關係人은 이에 關한 損失의 補償을 請求할 수 업다(同令第三十二條第三項 土地收用令第十六條)。 또 土地使用의 期間이 五年以上에 亘할 時又는 土地의 形質을 變更할 時는 關係人은 其土地의 收用을 請求할 수 잇다(同上土地收用令第十四條)(繼續)

# 產業 養鷄講話 ⑭

開豐農園 李允秀

## 育雛器具

育雛用器具中에 飼器와 飮水器는 업지못할 緊切한것이며 同時에 그 考案如何에따라 管理上便利함으로 育雛家의各自考案에依하야 多數多樣이잇슴으로 各各適當한方策을 選擇할것이나 다음에 大略몃가지의 給餌器와飮水器를 圖解하려한다

要컨대 給餌器는 雛가飼料를攝取하기에 便利하고 給餌하기에 簡便하며 給與한飼料가 不潔하게되지 아니하며 攝取時에 飼料가 허터지지 아니하도록 考案한것이면 滿足할것이며 飮水器도亦是 淸潔한淸水가 雛의要求에 依하야 不絶히供給될수잇는 程度이면 如何한것을 勿論하고 何等의關係가업슬것이다

## 技術의涵養

母鷄가孵卵하야 育雛하는것을보면 雛가發生하야 母鷄의품(懷)을 떠날때까지 母鷄自身의 努力과愛護이야말로 빼스트를다하야 一次의孵卵育雛에 獻身的努力의 結果는甚한者는 母鷄가斃死하는것이잇스며 斃死하지아니하엿다하야도 體重이三分의一이나 減少하도록苦心育成하는것임으로 母性愛를超越한 人工育雛에 잇서서는 管理人自體가 母鷄의代身이아니 되면아니될것이다 雛와서로對話는못할지언정 雛의우는소래를 理解하야 雛의要求를 滿足식히며 同時에 雛의心理를 잡고觀察하야 不滿과不足과 故障이發生하기前에 豫察하야 雛로하야금 安衆하게 자라도록하여야 하겟다 비록 自然을無視하고 母性을超越한 人工育雛일지나 母鷄育雛보다 優秀한結果를 나타내게할수잇다

育雛에는 技術의涵養이 勿論必要하지만은 技術者라고 반다시 育雛의成績이 언제든지良好한것은아니다 大槪 無經驗者가 처음으로 育雛한 結果가 良好하나 第二回育雛는 도리혀不良한것이 흔히잇다 技術에對하야는 第一回育雛時보다 낫다할지나 經驗이잇다는 信念으로因하야 熱誠이薄弱하야지는까닭에 如斯한結果가 나타남으로 技術과同時에 熱誠이잇서야할것이다

## 育雛溫度

卵으로부터 雛까지의 發生過程의 溫度에 關하야는 孵卵編에서 詳細히 말함과 가치 華氏百二度前後에서 孵化할수잇다 孵卵三週日後의 卵殼을깨트리고 나아온 初生雛는 卵殼內에 잇슬때보다 體力이强하고 體溫이增加 되엇슴으로 百二度의溫度를다要求하지아니할지나 그와近似한溫度를要할것은 雛自體가 겨우卵殼을脫出함에不過한 弱小動物인까닭에 孵卵과 別般의相異點이업다 다시 말하면 孵卵은 卵殼內의 育雛라고 할수잇는 反面에 育雛는 卵殼外의 孵化라고 할수잇다 孵卵期間中의 雛體는卵殼의 保護裝置가 잇슴으로 外敵의 防禦와 溫度의 變動에 多少間 緩和點이 잇스나 育雛는 保護的卵殼이 업슴으로 外敵의侵害를 直接으로 바드며 同時에 溫度의變動에 直接으로 影響하게됨으로 事實에잇서서는 育雛溫度를 더욱注意하여야 될것이다

다음에 育雛期間中의 各週에關한 溫度를列記코저한다

(1) 孵化後一週間까지……一〇〇度──九八度
(2) 第二週間……九六度──九四度
(3) 第三週間……九二度──九〇度
(4) 第四週間……八五度──八〇度
(5) 第五週間……八〇度

以上과갓치 孵化直後로부터 一週間까지는 百度前後의 高溫을要하나 雛의發育함을따라 體溫이增加함으로 漸次低溫으로 하야 三十日乃至四十日頃에 給溫을廢止하는것이나 雛의强弱과, 外氣의寒暑에依하야 多少間異함으로 要컨대 雛의 狀況을 보아 調節할것이다

第一週間의 溫度를 過高溫으로하면 雛가活氣가잇는것과갓치 보히나 事實은 活氣가잇는것이아니다 너무熱한까닭에 行動이焦燥한態據이고 그와反對로 過低溫의時에는 雛體가寒冷하야 消化不良이發生하기쉬움으로 特히注意할것은 初一週間의 溫度이다 初飼給與後 一週間前後에 泄瀉雛가多數히發生함은 不適當한飼料의 關係도不無하겟스나 溫度의不適當에原因됨이 大部分이다 母鷄育雛를보면 不完全한 飼料를給與하여도 泄瀉雛가 別로發生하지 아니함으로도 溫度에 關係가甚大하다고할수잇다

# 抗對百貨店 小賣商救助策

## 小賣戰線異狀잇다 【十二】

大田 梁基哲

八、對抗濫賣策

이것은 以毒制毒의方法이다 例컨대어떤 濫賣者의 資力이든지 在庫商品其他의 事情을 알고잇다면, 거기에對抗해서보담더싸게 廉價提供을 敢行하야 그店의犧牲을 無效에歸케해서 急激히 그勢力을 根絶식이자는것이다

꼿호도 이러케 議定되엿것이 어느程度까지 實行되여잇는지 업는지를 알어내는方法은 이러하다

一、相互諜方法
二、出張監督方法
三、試買方法
四、符號記入方法

一과二에對해서는 說明할것도업고 三의試買方法은 自己가손님인체하고서 濫賣한다는 所聞이잇는店에가서 直接사보는것이다

四의符號記入方法은 販賣系統이確立되여잇슬때 自己商品이 누구의손을거처서 濫賣되고잇는가를 알기爲하야 商品에 어떤符號를記入해둔다면 그 狀態를 잘알수잇다

나、團體的取締法

過去에잇서서 濫賣의取締乃至干涉에 各種同業組合이 當하고잇스나 그效果에잇서서는 甚히薄弱하엿섯다 엇재서 同業組合이 이러케도無力해젓슬가 元來同業組合은 價格의協定 濫賣取締에잇서서 權威를가지고서 共同利益을保護하는立場에잇는것이다 그럼에도不拘하고 이것의效果가적은것은 大正七八年頃의 日本農商務省次官 酒臘當時 景氣好調時代에 組合의 價格協定에關한 機能을 停止식혀서 價格協定이 高價獨占的 傾向으로되야 一般消費大衆을 害한다는것을 업새기爲한 原因에起因된것이다

그後組合은 制限力이업는 無力한機關으로 化해버렷다 그것이 十數年間에 世上은變하야 深刻한不況은 價格切下 粗製濫造 濫賣競爭을 激化하야 産業을破滅의 危地에 모라넛는形便에 至햇다

여기에잇서서 各種同業組合은 不時로 協定價格의 取締에 狂奔해보앗지만 無力한 組合이엿든만치 結局失敗에도라가고야말엇다 그러나今日의狀態는 組合의 機能을 充分히 發揮식히는것이 緊要함으로 組合組織의改善과 價格協定에 對한 機能回復을 各方面에서도 부르짓고잇다

다、國家的取締

日本政府에잇서서 産業統制의 大目的으로보아서부터 不正競爭防止法을 制定하야 不正競爭을 取締하려고햇지만 不法行爲를前提로하야 不當廉賣에 對한 取締는 여간困難하지안케되엿다 그것은 不當廉賣의限界에잇서 世間에만흔議論도 잇고 其原因 內容 動機 形態에依하야 各其認定도相違해온다 例컨대 製造販賣業者와 仲買販賣業者에依해서는 不當廉賣에 對한 解釋이 다르다 卽製造販賣業者에잇서서는 自己가 맨드러自己가팔음으로 그價格이 原價以下인지 안인지는곳判別할수잇스나 單純한販賣業者(小賣店 百貨店等)에잇서서는 엇터케仕入한지도 一一히알수업고 따라서原價도몰는다면 그限界를決定하기가 至極히困難한것이다

더욱히 第三者인 官憲이 그限界를定함에는 만흔困難과危險이잇는것이다

여기서 國家的取締는 同業組合卽 團體的取締와 合流식혀 同業者自身의 理想點을 發見하는것이 妥當하다는 一般意見이 多數임으로 同業者間에잇서서 不正競爭을 防止하는 同時에 그의主眼인 濫賣取締에잇서서는 만흔機能을 發揮식힐것이다

# 連鎖店의發展과 그將來에對하야 ⑤

韓昇寅

## (3) 現金과運搬(Cash and Carry)

누구던지 싼商品을 조화하고 生活費의 節約을 希望하는것이人의 常情이다。 連鎖店은 이러한 人生心理를 利用하야 商品의 低廉과 家庭의經濟를 力說하고 그代身에商品은 반다시 現金으로사고 산물건은 반다시가지고 가라고하는『現金과運搬』을 標語로세웟다。 이러한政策은 百貨店에서는 適應하기어려울뿐아니라 차라리不可能하다고하여도 큰過言이아닐것이다。 連鎖店에서는 食料品, 必需雜貨等價格이比較的싸고 또한重量이가벼우며 容積도적은商品을取扱하므로 『現金과運搬』制度가 可能하지마는 奢侈品, 무거운商品其他무엇이던지 取扱하는百貨店가튼데서는 到底히 如斯한制度를實施할수가업다。

米國 피글리위글리라고 하는 食料品店에서는 店內에商品과定價를 보기쉽게 또는알기쉽게 陳列하고 入口에는 빼스켓트를싸아노흔後에 顧客으로하여곰 마음대로드러가서 自己가願하는商品을 마음대로 집어가지고 나아가다가 出口에서 店員에게 그代金을支拂하고가게 만들엇다 이러한方法을 自己奉仕(Self-Service)制度라고말한다。 피글리위글리連鎖店의經營者의말을드러보면 『이……케함으로서 經營費의最大項目이되는 人件費를節約하고 따라서 一般消費者에게 低廉한價格으로 商品을提供할수잇다고한다。 그러나 最近에와서는 이現金과運搬이라던지 自己奉仕制度만으로는 到底히 消費者의欲望을滿足식힐수가업게되고 여러가지奉仕를 添加하는傾向이만히잇다。

## (4) 商品의標準化

連鎖店에서는 消費大衆이 가장만히쓰는必需品만을取扱하고 잘팔리지아니하는商品이라던지 또는利益이적은商品을 取扱하지아니한다。 지금은 製造業이發達하야 市場으로나오는商品의種類가 그數를헤일수업스리만치만히잇다。 그러나 一般消費大衆이 每日常用하는商品은 몃몃種類에 限定되여잇다。 商品의種類에對하여서만 그런것이아니라 商品價格으로 볼지라도 消費者들이 가장만히……는標準이잇다。 連鎖店은 이러한事實을 자세히調査한 結果 第一만흔商品만을 取扱하기때문에 다른商店보다 回轉率이 훨신速하게된다。 이러한點으로보아 連鎖店의政策이 自働車王헨리포드의 政策과 同一하다고할수잇다。 나이스트롬博士에依하면 食料品連鎖店에서는 大槪八百으로 一千五百種類의食料品을 取扱하고 個人食料品店에서는 一千五百乃至二千種類의食料品을 取扱한다고한다。 뿐만아니라 連鎖店에서파는商品은 반다시 中央本部에서仕入하야 各商店으로보내므로 各商店에서파는商品이 全然同一하다。

## (5) 現金仕入

連鎖店의 特質의하나는 商品을 現金으로 仕入하는데잇스며 이現金仕入이 連鎖店의長處의하나로 볼수도잇는것이다。 東西洋을勿論하고 製造業者는 現金으로 사가는사람에게 조흔品質도줄것이며 低廉한價格으로提供할것이事實이다。

하바드大學商學部에서 調査한 連鎖店에는한種類만잇는것처럼 생각하는사람이 적지아니한듯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連鎖店에는 어떠한種類가잇스며 또한各者가 가지고잇는 獨特한點을 明確히指摘하려고생각한다。

A、本格的連鎖店과任意連鎖店

本格的連鎖店이란것은 처음에한商店이서겨가지고 그商店의營業成績이良好하야 利益을남기게되면 다시第二店을내고第三店을내여 漸漸그數를增加하는者를말함이다 卽一同한經營者가 여러商店을 곳곳에두고同一한政策으로 販賣하는小賣商店이곳 本格的連鎖店이다。 그러나 任意連鎖店이란것은 同一한經營者가 여러商店을所有하는것이아니고 獨立한小賣商店들이 共同仕入、共同廣告、及共同統制를 하기爲하야 各自의獨立性을保存하면서 서로連絡하는것을말함이다 米國에서連鎖店이라하면흔니前者를 意味하며 學者는 此를會社連鎖店이라고도말한다。 그러나요새朝鮮에서 흔히말하는連鎖店은 後者卽任意連鎖店을 意味하는것이니 그理由는 近者에某百貨店에서經營하는連鎖店이 곳任意連鎖店이기때문이다。 本來米國에서任意連鎖店이 始作되든動機를 본다면 곳칠줄모르고 伸張하는 本格的連鎖店의勢力에 對抗하기爲하야 前日에는 서로反目하면서지내던 小賣商業者들이 共通的目的으로 서로團結하는데서 생겨난것이다。 그러므로 連鎖店이 始作된形便은 歐米와 朝鮮이 서로다르다고 할수잇다。 歐米에서는 먼저本格的連鎖店이 생겨가지고 그다음에 任意連鎖店이 생겻스나 朝鮮에서는 後者가먼저생기고 前者는아직出現하지도 아니하엿다 本文第一章부터 九章까지는主로本格的連鎖店에對하야 論述하고 第十章卽 마즈막章에서 任意連鎖店에對하야 簡單한說明을하고저 생각한다。

# 昨年度 蠶絲取締 業務成績槪要

(一) 蠶業取締所及職員數=蠶業取締所는 各道에 一個所式 十三個所이다

事務職員 五九名(常置蠶業取締吏員 五五名 常置書記 四名) 兼務職員 一〇四名으로 蠶種檢査員은 一六三名 延一二、〇一五人 檢查助手 二九四名 延一八、一四四人 其他(雇員及臨時) 六名 延三九七人을要하얏다

(二) 桑苗生産者=桑苗生産者數는 九二四名이고 其苗圃面積은 五六、六七一、三三아루 此生産本數 實生 七二、六〇七、八七〇本 接木 二八、一一四、八五八本 其他 一三六、七二五本이다 이를 前年度에比較하면 生産者에잇서 一一八名의減少이고 苗圃面積에잇서 一二〇一、三二九아루의減少이며 生産本數는 實生 三三、二八二、七九六本을 增加하고 接木 一〇、九三一、二三〇本을減少하야 合計 一一、五二六、三三六本(一割二分九厘)의 增加이다

(三) 蠶種製造者=蠶種製造者로서 許可한것 實數는 原蠶種 二八名 普通蠶種 二七五名으로 其中 春蠶期에 製造한者 前者에잇서 二名 後者에잇서 二六五名 夏秋蠶期에는 前者 五名 後者 一一二名이다

이를前年度에比하면 原蠶種製造者에잇서서는 免許數에잇서 三名減少 實際製造者에잇서 七名增加(前年度無) 普通蠶種製造者에잇서서는 免許數에잇서 二四名減少 實際製造者에잇서 春蠶期에 二五名을減하고 夏秋蠶期에 一八名을 增加하얏다

(四) 蠶種製造=原蠶種製造用에 供한 掃立蛾數는 五三八蛾로 八六、一〇七、一八瓦이오 蠶種製造用에 供한 五三八枚(內春蠶種 三一一枚 夏秋蠶種 二二七枚)에잇서 一二、八七三、三五枚(內春蠶種 八四四、〇八一枚 夏秋蠶種 四四三、一二五四枚)이다 이를前年度에比하면 原蠶種에잇서서는 五三八枚가 增加하고 普通蠶種에잇서서는 掃立蛾數에잇서 六、〇三九、八〇五瓦(七分五厘)을 增加하고 製造枚數에잇서서는 二二、四六二枚(一分八厘)(春蠶種 一六、二〇一枚 一分九厘)을 減하고 秋蠶種 三八、六六三枚(九分六厘)의增加)를 增加하야 合計 一分八厘의增加이다

(五) 母蛾檢査=比率檢査되合格口數는 三、二七七口 不合格口數는 一四四口로合格比率 九五、七八%이다 이를前年度合格比率 九五、三七%에 比較하면 〇、四一%의 好成績을示하얏다

再檢查口數는 一三四口로前年度에比하야 二六口를增加하고 病毒率은 四、四%이다

(六) 輸移入蠶種=輸入蠶種中原蠶種은 全部移出蠶種製造用의 蠶種으로 原製八、一五七枚 其他 七、二二四枚 普通蠶種은 原製 二六、六二八枚이다 이를前年度에 比較하면 原蠶種에잇서 原製五七枚 其他 七、〇四〇枚를 各各 增加하고 普通蠶種에잇서서는 原製 二六、六二八枚를 增加하고 其他 二、一三三枚를減하얏다

(七) 生繭取扱者=生繭取扱者는 四四〇名이고 取扱場所數는 八九六個所이다 이를前年度에比較하면 取扱者數에잇서 一〇名을減하고 場所數에잇서 一六個所를增加하얏다

# 暴風前夜 【17】

咸大勳 作 金熊超 畵

## 사랑 (七)

아춤이다! 서희는 피곤에사로잡혀 잠은드럿지만 밤새끗악몽바꾸면서 한잠노자지못햇다가 눈을뜨니오몸이 저리고압혓다。 몸은녹이는듯 땅속으로자자드는듯하다 그러나 서희를 땅땅치고닭이세화나울는것이 머리에 활동사진가티 전개되엿다

서희는 자리우에누은채로눈을다시감고 피곤한몸을 잡도리려고 하엿다、그러나 한번깨인눈에는 잠이다시지안엇다

머리는 짜개는듯이 압흐아그러나이러한 육체적괴로움속에서나다 층자리에서눈을또느니만 혼자솟사오르는승리의깃붐에밧곳이우슴이데다그러케도못참게 달려늘든 철이에게 겨우입술만도적맛고 최후의일선까지를 침범당하지안코 그언센남자의 품을 뿌리치고 자긔방으로도 라오든자긔의장쾌한일! 그리고

비가 [illegible]하고 로서버리던이 요란스럽기 때문에 무서운탓으로 첩첩히 굿게 잠것든 문을 서희는자리人속에서 인어가티흰팔을내밀어 열어제첫다……

그러케도 밤새끗 나려퍼붓든 비어데로갓는지하는은는맑게개엿다 맑은하늘에는 흰구름이 뭉게뭉게묘한봉을지어 두어장

오전열시……

서희는 겨우자리에서 일어나 낫을싯고 화장을간단히한뒤에 철의방으로갓나 아죽도그와철처히 다친문은 그대로잇다 서희는 문을 뚜들것다 대답이업다 대답이업다 一 그순간…… 이 안문을 열엇다 서희는 놀래이지 안을수가업섯다 방안은 허트리진채로 이부자리는 그대로 잇지만 철의간곳은 업섯다 서희는 의심이나서 주인을 불럿다……

『저……여긔 리선생못보섯서요?』

서희는 눈이휘둥굴해 물엇다 주인노파는

『몰으겟는뎁쇼……』

하고 별로 수상스럽지도안타는듯이 대답을하엿다

『어듸가시는것못보앗서요?』

『못밧는뎁쇼!』

서희는 철의방으로 드러가서 이불을제처다 방안에 흐여숨엇는가고 이리저리 차저보앗스나 방안에는업섯다! 모자! 양복구두……모-든게 다그대로잇다 서희는 조금 안심된다는듯이 혹은변소에갓는가하고 기다려보앗스나 오시를안엇다 서희는 어제人밤일을생각하고 설레이는가슴으로도 혹여 어떠케 되지나안엇나하고 주어집을나와 송림사히로 이리저리 철의그림자를 차저보앗다

그러나 아모리차저도 차즐길이업다、솔입새우에깃드린 어세人밤의 비人방울이 구슬가티매처서 아츰볏헤 령롱하게 빗나고잇다 잇다금 바람이지나갈때마다 그령롱하게 빗나든 구슬은 쇄르르하고 떠우에떠리저 깨여지곤하엿다

서희는 점점겁이나서 철을차저 해변가로 나아왓나 벌서 해수욕하는사람들은 물속에서 오리떼가티 헤염치고잇다 모래사장에 누어서 모래찜하는 이들도 적지안타。

서희는 철이가 아츰 수영을하려고 나오가해서 이리저리차저보앗다、그러나 아츰노먹지안코 수영하고 잇을 철이가안임을 생각할때 그것도허사라고는 생각햇지만 그래도 서희는 해여 잇는가하고 모래사장에 누은 사람사이로 이리저리 차저도보앗다 그리고 물결이러나는 해변가에서 물속에 뛰노는 사람들을 자세자세 바라도 보앗다 그러나 찻즐길은 도저히 업섯다。

흐여 그새집에 도라왓나하는 생각으로 서희는 다시주인집으로 도라와봣다 그러나 아즉것 도라오지 안엇다 고한다 서희는 더한층 설레이는 가슴을 진정할길이 업섯다 그리고 어제人밤 시달리고 잠노 잘못잔탓으로 몸도피곤하기가 끗이 업섯다 몸은 녹아 지는것 갓다 구나 아츰밥을 열두시나 되도록 먹지못하고 춘조한마음으로 이리저리 철을 찻즈러단이든 서희는 배가곱허서견딜수가업섯다 그러나 철의신상이 염려되는 서희는 밥을 먹을수도업섯다 서희는 혼자 자긔방에 피로와주림속에 정신업시 안저잇섯다

『내가 너무햇슴가? 그때문에 그이가 비관을햇나?』

서희는 안타가운마음에 이러케도 생각해밧다

『내가 너무고집을 세웟나? 내태도가 그의마음에 그러케도 큰상처를 주엇나?』

이러케 지난밤일을 도리키어생각하면서 가벼운 후회도 해보앗다 이러하고잇슬때 자긔방으로 사람오는 발자최소리가낫다 서희는 방문을열어